

## 지성주의적 대학문화를 위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양적 확장을 위하여 막대한 국가자원과 전 국민적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 제일의 교육대국이 되었다. 그것은 학력주의적(學歷主義的) 사회구조와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과열된 국민의 교육열이 빚어낸 사회현상이다. 요즈음에도 생소한 이름의 대학들이 해마다 줄이어 신설되고 대학의 양적 팽창을 위한 행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각 분야가 더욱 전문화되고, 노동인력의 국제이동과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가 촉진되는 지구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이 확장된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의 양적 팽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낮은 질적 수준에 있다.

최근 대학사회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국 대학의 학문적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아직도 매우 미약하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종합적인 대학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강력히 실행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열심히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학들은 열린 교육 체제의 구축, 대학체제의 정보화와 국제화,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개혁작업이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학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의 질을 향상시켜 학문적 수월성을 실현하는 데 두어야 한다. 대학의 질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개혁은 단순히 '개혁을 위한 개혁', '변화를 위한 변화'에 불과하다. 오늘날 여러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 중에는 대



한림대 총장 이 상 주

학평가를 잘 받기 위한 개혁, 정부의 재정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개혁,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개혁, 학생유치를 위한 개혁이 적지 않다고 본다.

대학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능한 교수요원의 확보, 적합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충실한 수업의 실시, 풍부한 학술정보와 도서의 확보, 최신의 실험기구와 교육기자재의 활용, 효율적 전산환경의 조성, 현대적인 교육시설의 구비 등은 대학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유형적 필수 조건들이다. 이러한 유형적 조건 못지 않게 중요한 무형적 조건은 대학의 지성적 문화와 창조적 분위기이다.

앞에서 지적한 유형적 조건을 아무리 훌륭하게 갖춘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창조적이고 지성적인 분위기를 상실한다면 새로운 지식의 창출, 전수, 활용을 위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미 심각할 정도로 지성주의적 풍토를 상실하고 있으며, 대신에 대학 구석구석에 반지성주의적 분위기가 넓고 깊게 팽배해 있다. 한국 대학의 지성주의적 풍토는 학생들의 장기간에 걸친 급진적 정치운동과 최근에는 향락적 '유희문화'에 의해서 여지없이 짓밟혀 왔고, 진지성을 잃은 교수들의 안일한 학문자세와 학문적 업적보다는 사적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연고주의에 의해서 크게 손상되었으며, 대학행정가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학문에 대한 몰이해에 의해서 크게 위축되었고 실용주의, 직업주의, 경제제일주의를 앞세우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의해서 여지없이 침식당하고 말았다.

한국 대학의 질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잃어버린 지성주의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일이다. 대학의 진정한 개혁 목표는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통한 학문적 수월성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대학의 질적 발전은 대학의 지성주의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한국 대학이 지성적이고 창조적인 분위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